

해외여행 자유화시대의 세계여행기

'긴 호흡'의 본격기행문 드물고 가벼운 에세이모음이 대부분

50세 이상 된 사람으로 부부동반일 경우에 한해 허용됐던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1989년부터 전면개방되면서 시작된 해외여행자유화시대로 벌써 3년째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 경비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 능력과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겠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해외여행은 아주 통상적인 일이 돼버렸다. 제주도 대신 동남아로 신혼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꽤나 흔해졌고,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했을 공산권국가로의 여행도 보편화됐다. 심지어는 해외에서 한국인여행객들이 벌이는 '추태성' 행각이 문제시될 정도로 해외여행은 보통사람들에게까지 일상사가 된 느낌이다.

그만큼 '세계'는 넓어졌다. 하지만, 발로 밟고 눈으로 보는 세계의 지리적 확장에 대응될 만한 우리의 문화나 정신의 세계가 덩달아 넓어지고 깊어졌는지의 여부는 아직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해외여행 전면자유화 조치 이후 쏟아져나오고 있는 일련의 세계여행기들이 특히 그같은 사정을 잘 보여준다. 본격적인 여행기로 육화될 만큼 소중한 경험들의 충분한 축적이 이루어지기에는 우리의 해외여행 역사가 매우 짧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즈음 다투어 책으로 선보이고 있는 세계여행기들이 결코 골고루 만족스러운 수준은 못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자유화조치 이후에 나온 것만 20여종

현재 서점의 점두에 나와있는 세계여행기는 모두 30종을 상회하는데 그중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출판된 것만 해도 대략 20종 가까이 된다. 이 책들은 물론 여행지역이나 저자들의 신분, 그리고 여행기 기술의 방법론이나 수준 등에서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그 특징을 일괄적으로 단정짓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최근들어 한 흐름을 이루는 것이 있다면 이른바 '배낭족' 여행기. 햇빛출판사에서 연속적으로 나온 '배낭족 이야기'(윤재현), 「배낭여행」(이경), 「홀로 떠나는 세계여행」(손효원), 「3천원의 인도여행」(김정미), 「배낭 하나 달랑 메고」(김정미). 등을 비롯해 「내 배낭 속에는 바람과 시와 밤기차가 있다」(한찬숙, 청맥), 「단보짐 남미여행」(신재동, 강전), 「결망 속에 세계를 담고」(원담, 진선) 등이 그것인데, 1989년 이전에 나온

영화감독 이규형의 「봉주르 마담」(오늘), 「굿바이 사요나라」(오늘)도 이 경향에 속하는 책들로 볼 수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책들은 '배낭'이나 '단보짐', 혹은 '결망'을 메고 떠난 '경제적인' 세계여행의 경험담을 담고 있는데, 대부분의 저자들이 30대 안팎의 젊은이들.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여행을 만끽한 '즐거움'과 '요령'을 함께 전하고 있어 배낭여행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실제적인 가이드북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런만큼 본격적인 기행문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도 적지 않다. 대신 "해외여행의 문제점은 돈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과 용기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젊은 여행객들이 낯선 풍경과 인정을 만나고 겪으며 느끼는 액조티즘의 흥분이 경쾌하고 발랄하게, 때로는 장난스럽게 펼쳐지고 있어 그 감각의 신선함은 돋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 경쾌함과 발랄함이 경박성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 '다른 세계'를 접하며 변하는 치열한 정신과 의식의 흐름을 일관된 맥락 속에 서술한 것은 거의 없고, 이국땅에서 느끼게 마련인 '문화충격'의 진지성을 무화시키는 파편화된 에피소드들의 단순한 집적으로 엮어진 책들이 많은 편이다.

「결망 속에 세계를 담고」와 「단보짐 남미여행」은 승려와, 50세가 넘어서 비로소 배낭여행에 나선 이가 각각의 저자라는 점에서 이채로운 경우인데, 두 저자 모두 이 책들을 펴내기 이전엔 "도통 글이라곤 써본 적이 없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배낭족 여행기'가 가장 많아

배낭족 여행기는 아니지만, 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저자의 모습이 '여행기 작가'보다는 '여행가'로서 더 두드러져 보인다는 점에서 배낭족 여행기와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스포츠서울」지에 세계여행기를 연재한 바 있던 서진근의 「남태평양 풍물기행」(지학사), 「유럽 22국 기차로 간다」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 그밖에도 뉴욕의 무역상사 직원인 저자가 중국의 16개 도시를 기차와 버스, 배와 비행기를 타고 단독 횡단한 이야기를 담은 최무평의 「중국, 본 것 느낀 것」(중앙교육진흥연구소)을 비롯해 「세라비-유럽기차여행」(전기영 / 문지사), 「동남아로 가는 길」(윤백중 / 유럽문화



해외여행 전면개방 조치 이후 한국인 해외여행객의 수는 부쩍 늘었으나, 그것은 여행의 경험을 독자들이 공유할 만한 잘 씌어진 여행기는 아직 매우 드물다. 사진은 프랑스의 유명한 관광휴양지 니스해변.

사), 「40년만에 가본 중국」(허영관 / 명문당)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것들로 볼 수 있다.

한편, 여행기라기보다는 '체류기'에 가까운 것으로 「나그네수첩」(이시호 / 동산출판사), 「일본땅 일본사람」(신평 / 세대)이 있다. 앞의 책은 파키스탄 카라치주에 영사인 저자가 10년동안 외교관생활을 하며 가졌던 파키스탄, 리베리아, 독일 등지에서의 체류경험을 토대로 해당국가를 관찰한 에세이를 모았고, 뒤의 책은 국내최초의 일본파견법관으로 13개월동안 일본에 체재한 저자가 역시 그 체류경험을 토대로 일본사회를 관찰하고 분석한 글들을 모아 엮었다.

「중국 중국인」(이부광 / 동아), 「페레스트로이카 소련기행」(김영희 / 나남), 「남태평양」(김양우 / 춘추각) 등은 취재기적 성격이 짙은 신문기자들의 여행기.

이중 「중국 중국인」은 최근의 천안문사태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중국의 생생한 모습을 중국대륙 중단취재를 통해 재현하고 있는데, 이국정취에 젖은 나그네의 감상적 기행문이라기보다는 기자의 눈에 포착된 중국의 정치, 외교, 경제, 문화, 풍물, 종교 등이 잘 분석돼 있는 글들을 실고 있다.

중앙일보에서 북방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저자가 1989년부터 소련을 드나들면서 보고 들은 것과 미국, 일본, 유럽의 자료를 토대로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소련의 변화양상을 포괄적으로 기술한 「페레스트로이카 소련기행」은 기행문과 해설서의 형식이 혼재돼 있는 점이 특징. 한의사가 저자인 「동유럽기행」(정원조 /

교보문고)도 이와 형식적으로 유사한데, 직접적인 여행경험담과 기왕의 이 방면 정보를 취합한 해설을 혼재시켜 폴란드, 유고, 헝가리 3국의 이해를 돕고 있다. 「남태평양」은 1984년 부산일보에 연재됐던 것을 한데 모은 책으로 뉴질랜드 등 남태평양지역 8개국의 취재여행기를 담고 있다.

"이 여행은 나를 변화시켰음에 틀림없다"

문인들의 해외여행기 또한 적지 않아 현재 서점에서 쉽게 눈에 띄는 것만 해도 10종 가까이 된다. 소설가 박경리의 「만리장성의 나라」(동광출판사), 강석경의 「인도기행」(민음사), 김은국의 「소련과 중국, 그리고 잃어버린 동족들」(울유문화사), 수필가 전숙희의 「아직도 가슴속엔 불가강이 흐른다」(삼성출판사), 시인 김문희의 「유럽, 그 그리움의 거리」(백문사) 등을 비롯해 「매혹의 라틴아메리카」(전규태 / 범우사), 「해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송영옥 / 문학세계사), 「갠지스강물 따라」(김양식 / 인문당) 등이 나와 있고 법정인의 인도기행문도 곧 출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비교적 일관된 흐름과 긴 호흡을 갖춘, 본격기행문으로서의 면모가 가장 두드러진 책이 「인도기행」과 「만리장성의 나라」.

「인도기행」은, 작가가 그동안 자신에게 "정신의 마지막 안식처로서 보리수가 무성한 붓다의 고향, 지평선이 끝없이 이어지는 대륙, 타즈마할이 있는 환상의 땅" 등 여러 영상으로 간직돼 있던 인도땅을 네달간 순례하며 겪은 일과 깨우침을 담고 있는데, 작가는 "이 여행은

**「왕오천축국전」이나 「열하일기」,
그리고 「서유견문록」의 시대만 해도
여행기는 '다른 세상'의 소식을 전하고
실상을 밝히는 거의 유일한 '정보'였다.
하지만, 매스컴이 전쟁을 중계할 정도로
발달한 이제 여행기가 갖는
'정보'로서의 의미는 상당부분
퇴색할 수밖에 없다. '문학'으로서의
여행기만이 다른 아무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게 됐다.**

나를 변화시켰음에 틀림없다"고 단언하면서 "진정한 여행이란 깽으로부터의 떠남이고 나는 인도에서 나의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다.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가 쓴 중국여행기 「만리장성의 나라」는 단순한 풍물기행의 차원을 넘어선, 중국적 삶과 중국문화 이해의 단서를 포착하는 작가의 혜안이 돋보이는 기행문. 「토지」의 무대이기도 한 중국대륙 여행에 대해 작가는 "나는 결코 작품에 나오는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 서울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대지와 사람을 보기 위해 중국에 왔다.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 우리 동포의 삶과 만나기 위해. 그것은 작가 이전의 사람으로서 인류생존에 대한 열망 같은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재미작가 김은국의 「소련과 중국...」은 작가가 직접 찍은 컬러사진 중심의, 포토에세이로 씌어진 여행기라는 점에서 이채로운 경우. 소련 및 중국의 한인동포들에 카메라와 글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한반도 밖에 있는 우리'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절절하다.

그밖의 책들은 소련(전숙희), 유럽(김문희), 중남미(전규태), 인도(김양식) 지역 기행문을 각각 담고 있는데, 그 여행지역의 상이성 이외에는 "본대로 느낀대로 거짓없이 기록했다. 참고서적이거나 자료도 변변히 확보하지 못해 에세이식으로 써내려갔다"는 전숙희의 말에서 크게는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여행중에 겪었던 일이나 품었던 생각들을 정리한 짧은 에세이들을 한권 분량으로 묶은 것이 대부분이다.

'정보' 인가, '문학' 인가

한편, 비문인 저술이면서 본격 여행기의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꼽을 만한 책에는 한·몽골협회장 최서면의 「몽골 기행」(삼성출판사)이 거의 유일하다. 1987년부터 무려 18회에 걸쳐 몽골을 여행한 저자가 몽골의 출생, 성장 교육, 혼례, 장례, 의식주, 풍속, 신앙 등에 대해

관찰한 경험적 사실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기행문의 형식을 빈 몽골연구입문서가 되고 있다.

위에서 보듯 현재까지는 해외여행자유화시대에 걸맞는 좋은 읽을거리로서의 세계여행기가 드문 실정이다. 1970년대 초반 큰 인기를 끌었던 김찬삼의 전집판 세계여행기에 비해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이 이즈음 간행되는 세계여행기들을 보는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에 대해 소설가 고원정씨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됐다는 사실 자체가 한 원인일 수 있다면서 "이제 북한을 빼곤 지구상에서 못갈 데가 없게 됐으니 여행을 통해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려는 간접체험의 수요는 그만큼 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지적될 수 있는 또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쟁을 중계할 정도'로 발달한 매스컴의 신속성. 최초의 「왕오천축국전」이나 박지원의 「열하일기」, 그리고 유길준의 「서유견문록」 시대만 해도 여행기가 다른 세계의 실상을 전하는 거의 유일한 정보였지만, 이제는 매일같이 접하는 매스컴이 지구촌 구석구석의 움직임을 전해주고 있어 굳이 여행을 통해 정보를 얻을 까닭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세계여행기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정보'로서의 여행기가 갖는 의미는 매스컴의 발달로 바

래졌지만, '문학'으로서의 여행기나 기행문이 갖는 의미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여행을 일러 "낮익은 것들로부터의 떠남이요, 낯선 것 속으로의 출발이다"라고 규정하며 "이 책은 하나의 꿈이 어떤 현실의 풍경과 서로 만나는 사랑의 기록"이라는 김화영교수의 지중해여행기 「행복의 충격」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은 충분히 음미할 직하다.

"너무 늦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나는 모든 젊은 사람들처럼 떠났다. '나두야 간다. 내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는 아마도 아름다운 시는 아닐지 모르나 저마다의 가슴 속 잘 진동하기 쉬운 핏줄을 두드리는 외침임에는 틀림없었다.

우리들이 참으로 '떠난다'는 일은 쉽지 않다. 떠나는 방법은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다. 수없이 떠난 사람에게도 모든 '떠남'은 항상 최초의 경험이다. 떠나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교육할 수 없는 것이다.

'미지의 것' '다른 것' '다른 곳' 이 감추고 있는 '새로움'은 참으로 우리들의 모든 유익 하였던 경험들을 무용하게 하는 데 그것의 힘이 있다. 행복을 향하여 떠나는 자는 사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 그 공포를 지拂하는 순간에 가슴을 진동시키는 놀라움을 향하여 떠나는 것이다."

움베르토 에코 화제의 장편소설

장미의 이름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석학 움베르토 에코 교수가 처음 발표한 소설로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 14세기 이탈리아 북부의 어느 수도원에서 금서를 둘러싸고 이레 동안 일곱차례의 연속살인사건이 일어난다. 호기심 강한 윌리엄 수도사는 복잡한 기호와 암호를 해독하여 밤이면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는 장서관의 미궁으로 잠입해 들어가 비밀을 하나씩 벗겨낸다. 저자 특유의 예리한 위트와 언어연금술로 대단히 난해한 사상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리소설적 긴장감, 흥미진진함을 유발한다.

●신국판 / 이운기 옮김 / 564면 / 값 4,500원



푸코의 추

모든 것은, 외인부대 출신 아르덴티 대령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밀라노에 있는 한 출판사에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성당기사단 음모에 관한 암호를 발견했노라고 말한다. 재기 넘치는 편집자들은 장난을 좀 치기로 한다. 지하세계의 창조주, 피라밋에 감추어진 태양계의 엄청난 비밀, 성당기사단, 프리메이슨, 정미십자회, 그리고 회교 암살단... 이 모든 자료는 컴퓨터에 입력된다. 이들은 이 무시무시한 지적 유희를 즐긴다. 대령을 비롯, 비밀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실종되기 시작하기까지는... <푸코의 추>에 숨겨진 지구의 비밀은?

●신국판 / 이운기 옮김 / 420면 내외 / 각권 값 4,200원

TEL. 739-8173 **열린책들** FAX. 720-6365